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 이 정보는 <http://www.ares.gangwon.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농업인께서는 병해충 방제에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기관·단체에서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방제
대상
병해충

식량작물 병해충

- ▶ 모마름병, 뜸모 : 모가 연약하고 밤낮의 온도차가 클 때 피해가 심함
- ▶ 멸강나방 : 올해 3월 하순 비래가 확인되었고 약충 발견 시 발생 초기 방제 필요함
- ▶ **열대거세미나방** : 5월 중 비래 가능성이 높으며, 8월까지 지속적으로 비래하여 옥수수(식용·사료용)에 산란 및 피해발생이 예상됨

채소작물 병해충

- ▶ **역병·탄저병** : 역병은 물을 통해 전염되며 발병하면 급속하게 퍼져 약제를 통한 방제가 어려움. 탄저병 예방을 위해선 1차 전염원으로 여겨지는 지난해 버려진 병든 잔재물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NCPMS 예측정보를 활용해 5월 중순 이후 약제 처리 권고
- ▶ **잿빛곰팡이병** : 시설 내 온도가 낮고 다습한 조건이 오래 지속 될 경우 발생하며 일부 포장에서 발생이 확인되어 주의가 필요함
- ▶ **흰가루병** : 일조가 부족하고 밤낮의 기온 차가 심하며 다비재배 시 발생이 증가함

과수 병해충

- ▶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매미나방** : 올해 월동난 조사 결과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는 발생 면적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미나방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올해 돌발해충 월동난 부화시기는 평년에 비해 6~7일 빠르며, 작년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5월 중하순 무렵 부화할 것으로 예상됨

“**농약안전허용기준**을 잘 지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합시다”

– 잔류허용기준이 강화(PLS시행)되어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요 병해충 방제요령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 모마름병 및 뜸모 (예보)

- 파종량이 많아 산소가 부족하고 밤과 낮의 온도차이가 클 때 피해가 발생하므로 철저한 못자리 관리가 필요함. 최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주의 필요함
- ☞ 알맞은 양을 파종하고 온도 차를 줄이기 위해 낮에는 환기, 밤에는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멸강나방 (예보)

- 중국에서 날아온 비래해충으로 목초나 옥수수 등 주로 사료 작물과 벼에 피해를 끼침
- ☞ 올해 3월 하순 처음 비래가 확인되었으며 기주식물(목초지, 옥수수 포장) 재배지역에서 어린 벌레가 발견되며 등록 약제로 발생 초기에 방제해야 함

◆ 열대거세미나방 (주의보)

- 중국에서 비래하는 해충으로 국내에는 19년 6월 첫 발생. 중국 남부지방의 월동지 확대로 국내 유입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음(제주 및 남부지방 조기재배 옥수수에 산란 및 피해 발생 예상).
- ☞ '22년 대비 약 한달 정도 빠르게 국내 비래 확인됨(제주 서귀포시 '23. 4. 21.)
- ☞ 약제 방제는 발생초기에 품목별로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도록 함



[유충 꼬리 4개의 점]



[머리 Y자 모양]



[2령 유충]

채소류 병해충 방제

◆ 역병 · 탄저병(고추) (예보)

- 역병은 물을 통하여 전염되는 병으로 일단 발병하면 급속하게 번지고 약제에 의한 방제가 어려움
- ☞ 퇴비 등을 활용해 토양의 성질을 개선해주고 해마다 발생이 많은 상습지에서는 비닐을 씌우기 전 또는 정식 직전에 등록 약제를 토양에 관주하고 물 빠짐을 좋게 하여 발생을 억제함
- 고추 탄저병은 지난해 버려진 병든 잔재물이 가장 중요한 1차 전염원이 되며 개화기에 1차 감염이 되어 잠복할 경우 피해가 커짐
- ☞ 포장 경운 전 잔재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정식 후 개화기에 보호용 살균제를 2회 이상 살포하여 1차 감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해야 함
- ☞ NCPMS 예측정보를 활용하여 5월 중순 이후에 감염 위험 정보 시 3일 이내에 침투이행성 등록 약제를 충분히 처리해야 함

◆ 잣빛곰팡이병(딸기, 오이, 토마토, 상추 등) (예보)

- 시설 내 온도가 낮고 다습한 조건이 오래 지속될 경우 발생하며 일부 관리 소홀 포장에서 발생 확인됨
- ☞ 적절한 환기를 통해 시설 내 습도는 낮추어 주되 보온에 유의해야 함
- ☞ 병든 식물은 시설 밖으로 빼내어 땅속에 묻는 등 전염원 차단이 중요함

주요 병해충 방제요령

채소류 병해충 방제

◆ 흰가루병(딸기, 오이, 메론 등) (예보)

- 하우스 등 시설재배지에서 흔히 발생하며 일조가 부족하고 밤낮기온차가 크며 다비재배 시 발생
- ☞ 병든 식물은 속히 제거하고 질소가 과용되지 않도록 균형시비를 하면서 병 발생 초기 방제
- ☞ 일출~오전10시경 흰가루병 포자의 비산이 가장 많이 이뤄지므로 약제 살포시 10시 이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같은 계통의 약제를 연용하기보다 다른 계통 약제 번갈아 가며 살포해야 함

과수 병해충 방제

◆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매미나방 (주의보)

<갈색날개매미충>

- 올해 월동난 조사 결과 갈색날개매미충은 발생면적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묘목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묘목을 구입해 식재할 경우 어린 가지의 아래쪽을 잘 살펴 난괴(알)이 보일 경우 가지를 제거해야 함
- * (부화시기 예측) 강원 : 5월 18~19일경 예측



[1령]

[2령]

[3령]



[4령]



[5령]



[성충]



[알]



[난괴]

<미국선녀벌레>

- 연간 1세대 발생하며 월동한 알은 5월 중·하순경에 부화하며, 약충은 5령을 거쳐 성충이 되며, 성충은 7월에서 10월까지 발생함
- * (부화시기 예측) 강원 : 5월 22~24일경 예측



[약충]



[성충]



[미국선녀벌레 발생(배, 체리)]



주요 병해충 방제요령

과수 병해충 방제

<꽃매미>

- 올해 월동난 조사 결과 꽃매미는 발생면적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꽃매미는 연간 1세대 발생하고 월동한 알은 5월 상·중순경에 부화하며, 약충은 5령을 거쳐 성충이 되며, 성충은 7월에서 11월까지 발생함
- * (부화시기 예측) 강원 : 5월 11~12일경 예측
- ☞ 월동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친환경적이며 발생을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어 봄철 과수원이나 인근 야산의 난괴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음



[월동알]



[약충]



[성충]

♣ 2023년 돌발해충 월동난 부화 시기 예측

- ▶ 올해 측정된 1~3월 전국 평균 기온은 3.8℃로 평년(2.3℃)보다 1.5℃ 높게 나타났다. 월동난이 부화되는 5월 중·하순 무렵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 ▶ 월동난 50% 부화시기 예측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5월 기상전망

(강원지방기상청)

기온은 1주, 4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2주, 3주는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입니다. 강수량은 1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40%, 2주, 4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40%, 3주는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입니다.

지역	주	1주 (05.01.~05.07.)	2주 (05.08.~05.14.)	3주 (05.15.~05.21.)	4주 (05.22.~05.28.)
영서	평균기온	평년(14.3~15.7℃)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14.6~15.8℃)보다 높음	평년(15.8~17.0℃)보다 높음	평년(16.7~18.5℃)과 비슷하거나 높음
	강수량	평년(6.6~29.6mm)과 비슷함	평년(10.4~21.1mm)과 비슷하거나 적음	평년(10.6~27.4mm)과 비슷함	평년(5.6~23.4mm)과 비슷하거나 적음
영동	평균기온	평년(14.0~15.8℃)과 비슷하거나 높음	평년(14.2~16.0℃)보다 높음	평년(15.9~17.5℃)보다 높음	평년(16.4~18.6℃)과 비슷하거나 높음
	강수량	평년(4.3~21.0mm)과 비슷하거나 많음	평년(7.9~16.9mm)과 비슷하거나 적음	평년(5.9~24.3mm)과 비슷함	평년(5.1~17.7mm)과 비슷하거나 적음

※ 날씨 예보는 전화 131번(<http://gangwon.kma.go.kr>)